

고은 불교대하소설

다시 떠돌다가

두령의 아이없는 괴사로 말미암아 그 강도집단은 불과 20명 미만이지만 그것마저 삼삼오오 갈라져야 하였다. 두령을 제거하면 바로 부두령 아래 대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특히 두령이 맡고 있는 합두를 부두령이 맡으려 하는데 그때 불이를 담당 한 사람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합부로 건드려서는 안됩니다"라고 외치며 합두를 불이와 함께 지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두령은 합두에 대한 야심 때문에 두령을 죽였던 셈인가. 물론 그런 여색에 관련된 동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두령은 강도집단 본부의 직속이어서 그의 일무어는 두령을 감시하는 일이 남몰래 주어진다.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두령은 사실인즉 그들의 본부 세력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사막 일대의 여아 시스에서 불도의 인상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오아시스 주민들과 그가 뜻을 합치면 강도집단의 본부는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관여 두령은 아름다운 합두를 포로라는 이름으로 매우 극진하게 예우하는 것이 부두령의 속이 뒤집힌 것이 틀림없다. 처음에 두 손을 묶었던 것까지 풀어서 주었으며 두령과 합두는 차츰 오랜 사이처럼 절친한 말을 주고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간밤의 두령회의에서는 합두를 내보내지 않고 합석시키기까지 하였다. "여차 말할 수 없는 계집을 우리 회합에 끼게 한단 말이오"라는 그의 항의는 끝내 단검을 빼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부두령은 내가 너희들을 거느린다고 가슴팍을 피어 위엄을 부렸으나 그때 불이의 담담한 사람과 그를 따르는 대원 7명이 부두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그들은 이 집단 가운데서도 정예였다. 그러므로 부두령은 당황하였다. 부두령의 그런 담담은 그에게 줄리던 대원들을 서너대로 갈라치게 하였다.

"나는 남로(南路)로 돌아가겠소."

"우리는 여기에서 모래 속의 보물이나 뒤지겠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불이의 담담이 그때 외쳤다. "여러분이 여기서 서로 갈라지면 여러분은 곧 해골이 될 수 밖에 없소. 하늘에는 이제 승개가 오요.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따르시오. 나는 두령의 뜻에 따라 본래의 목적지로 갈 것이요." 그러자 서너사람으로 한 개거리가 되어 그들끼리 오던 길로 낙타마리를 돌렸다. "제기랄 요고산(요고산)의 신인(神人)이 되지 못할 바에는 대담초의 길로 가는 것이 좋겠지..."라고 불이의 담담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7명이 4명이 더하여 11명이 되자 나머지 두어 개거리도 여기에 기울어졌다. "하하하 웃고 있을 때가 됐어! 칼을 들었어! 칼을 마구 찌르는 알리지, 안 되구말라!" 라고 어떤 마흔살짜리 대원이 큰



담담이 된 것이다. 이름이 스물다섯개나 된다는 것은 수미산의 우주안을 이루고 있는 남섬부주 동송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지옥속생 아귀수라 사현왕 그리고 아미한 도솔천 화려천 타화천 범왕천 무상천 나한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저 석차 무소유처 비비상처 등을 아우르는 뜻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부두령을 그가 먹을 3일분의 물과 전방만을 주어서 사막 한 가운데 남겨두었다. 부두령은 이제까지의 장부다운 기상이 누구보다 강렬한 시선을 가진 외지 따위를 다 내버린채 붉은 눈물

타를 배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담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담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담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담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담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특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팔을 함으로써 바림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모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물길(西突路)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은 술잔받이... 기련산(新龍山)의 백

새두령의 강도집단에 소속된 만화 합두 불이는 다같이 포박에서 풀려 손발이 자유로웠다 합두에게는 부두령이 타던 성능좋은 낙타를 타게 하였고 만화와 불이도 낙타를 배당받았다

사구가 약 1백미터 높이 직경 3백미터 짜리로 생겨나서 모래바람이 일기 전까지 내다보였던 앞이 꼭 막혀버렸다. 이번에는 만화가 아주 겁에 질린 약한 집승이 맹수 앞에서 아주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는 것처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응!" 바로 그들 강도집단의 뒤에도 앞에 만들어져 있는 사구보다 더 큰 것으로 이까지 왔던 곳을 알아볼 수 없게 막혀버렸다.

그러나 다양하게도 그들은 앞과 뒤의 사구 사이에 안전하게 보존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런 다양도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사구에 의해서 불행으로 바뀌어질지 모른다. "응!" 만화는 입 속의 신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입 속은 벌써 모래가 반쯤이나 스며들어갔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입을 열고 모래를 빨아내는 순간 모래가 다시 그 입속으로 들어갔다. 만화와 앞에 있던 젊은 대원이 만화의 등쪽을 탁 했다. 붉은 점으로 얼굴을 거의 가린 것 자체가 이 사막에서의 두려운 대

불이에게 극한의 모래바람 속은 도량이였다... 불현듯 전생이 확인해졌다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 부두령이 단검을 뽑아 마흔살짜리에게 던지려하자 만화가 두손을 묶인채 그 부두령의 팔을 쳐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몇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부두령을 포위하였다. 불이의 담담이 다가갔다. "이 사람을 굳이 우리의 신성한 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낙타만 데리고 떠나면 되겠지... 이런 현상을 독자지 하고 있도록 남겨두고 말아라." 이 말은 명령이나 다름 없었다. 불이의 담담은 그때서야 세사람의 포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라도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밝혔다.

"내 스물다섯개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알려주겠소. 도리(勿利)라 하오." 그러자 마흔살짜리가 "도리 두령!" 하고 불렀다. 나머지 대원들도 뒤이어 "도리 두령!"을 외쳤다. 이렇게 되자 새 두령은 불이를 태우고 왔던 불교와 범어에 해박한

방울을 맺고 있다가 고개를 떨군채 주저앉은 그대로 움직임을 보였다. 떠나는 대원 하나가 외쳤다. "살려 달라고 애원해 보시지!" 그러나 부두령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막의 어딘가에 묻혀있는 화석이나 해골 그리고 옛 유적 따위의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그를 남겨두고 떠난 강도집단의 대원들은 낙타들의 굼뜰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신기루로 지팡이 위에 명료하게 나타나는 바다 위의 여러 섬이 잘 보일 수 있는 거리까지 나아갔다.

한 걸음이 만리의 시작 아니던가. 이제 만화 합두 불이는 다같이 포박에서 풀려 손발이 자유로웠다. 합두에게는 부두령이 타던 성능 좋은 낙타를 타게 하였다. 나머지 두 사람도 잘 실은 낙타의 짐을 나누어 실는 대신 만화와 불이도 낙

옥(白玉)중에는 노산옥(老山玉) 신산옥(新山玉) 하류옥(河流玉)의 그 투명한 옥으로 만든 술잔이 있어 이 놈으로 한잔 저놈으로 한잔 마시다가 낮과 밤을 알 수 없게 되고 말지... 아 술이 귀하게 되겠지..."

"언제 영감이 그렇게 호강해보았던 말이오? 공연히 들은 공명으로 허풍치지 마시오."

"우앗!" 허풍이라고 말 위에서 듣는 비파 잔 비우기를 재촉하네(欲飲欲飲馬上)... 이런 경지를 자네가 알지 않겠지... 어디 그뿐인가... 취하여 모래밭에 쓰러져도 그대 못지 않게(醉臥沙場莫笑).... 옛부터 싸움터에 나간 뒤 몇이나 돌아왔던가(古來征戰幾人回)....

"아이쿠. 풍월 읊기로는 저 양주사(梁州詞)를 지은 목격은 따를 수 없겠네... 그런데 말 위의 술은커녕 낙타 모는 도둑이 되었으니 그 신체가 가련이로다."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말하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이할 줄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불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겼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욕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영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달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원이 울컥달락하지 않은 채 멍하니 있는 동안 바로 그들의 앞에 새로운

상을 과시하는 강도로서의 압박도 못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같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파제이기도 하였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붉은 낙타는 수컷 짐만 실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다른 낙타도 그렇게 앉아있었다. 낙타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절망해버린 나머지 그것들에게 한오라기의 집착도 하지 않는에서 오는 그런 둔탁한 체념이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문득 사나운 모래바람이 힘을 갈자기 줄었다. 얼굴에 쏟아대는 모래의 힘이 한결 약해진 것이다. 불이가 탄 낙타가 울음소리를 냈다. "모래의 신께서 지나가셨도다!"라고 누군가가 말하였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받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일지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통신식 ● 자재정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정보 소개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중풍예방치수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영양요법 건강 지킴법

정상수
건강연구원
입구명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신비의 신라 범종 개발

보통 6년치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적 신을 선도해온 저희 장공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범종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편취하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꼭 편취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건조사 범종제작 및 불상조성 대표작을 실컷 다시오

정호사 聖龍社 龍光 龍光(龍山)당장

☎ (02)733-6141 (서울사무소) ☎ (0331)283-2083 (공정)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웅전 법상·경상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수미단 문짝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수미단 문막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문막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문막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문막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문막
- 의정부(해인사) 대웅전 문막

대전(전승)공예사
전화: 011-282-4609
팩스: 02-248-4609
지: 0346-571-9538
호: 012-105-1401
趙玉 韓 貞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싱글

전화 (053) 742 - 7855
051-717 - 7792
011-532 - 8454

(주) 신 화 개발

거승 동양화 화실
거승 철학원(운명 조연)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340-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 건물 배려 받은 대우(무(도)장, 무(차)재) 전문 시범법 및 전문 공개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한국교육평가기원
사무소: 서울 중구 안국동 세운관건물 2층 213호
전화: 02-766-9090

명당자리 당대에 금시 발복지로서 사찰·사암에 적지임

용산면 부동리 주변의 산세는 황룡이 구비치고 청룡 백호와 현무주악이 일시에 호응하여 금방이라도 발복할 듯이 기세를 만들었고 약수는 석반 약 80M 지하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신선의 대도량으로 기도처 및 수련원으로 적합

주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동리 423번지 (대지: 414평, 건물: 10평 (청기와 양옥))
가격: 약 8천만원 (청중 가능함)
연락처: 서울 02-821-6622 주인 직접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년 2회 실시 4월·8월
회원 모집중

국고 졸업과정: 한글반, 재수생, 직장인,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일제 불어반 제정 "강의대상교재"
○ 학교수업식 "강의 내용", 학습
고교 졸업과정: ○ 원거한 1:1 "맞춤 관리제"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입회 허락 가능

신영희(73세, 한어) | 주: 홍곡(24개월)
박은희(65세, 주부) | 주: 홍곡(5개월)
이성수(39세, 직장인) | 주: 홍곡(18개월)

특징: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 원동출판사 (영·수) "비디오교과서" (9·14)
특정학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00)
기초 (영어·수학) 과 약한 부분을 위한 별도 레슨! 제공

문의: (02)766-9090 (주)신사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9600

민당자리 당대에 금시 발복지로서 사찰·사암에 적지임

주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동리 423번지 (대지: 414평, 건물: 10평 (청기와 양옥))
가격: 약 8천만원 (청중 가능함)
연락처: 서울 02-821-6622 주인 직접

대한교육평가기원

사무소: 서울 중구 안국동 세운관건물 2층 213호
전화: 02-766-9090

근대생활불교강좌진
제 3기 개강 4월 15일

1. 생활의식, 생활의식, 생활의식 등
2. 용수지리, 주택, 건물, 경향, 묘지 쓰는 법
3. 5호 6기 사주학, 점성술, 풍수, 지리
4. 불교의 신, 수련(월·금·오전 6:30-7:40)

● 강좌기간: 각반 3개월, 선학수 30명
수강대상: 불교지도자, 불교학사, 불교학사, 불교학사, 불교학사
강화시간: 금, 토요일(4시, 7시, 9시)

● 위치: 서울 3층 1650-10 서초역에서 2분 (연호사 회관-홍부대-유리-정우 이발관 뒤)
*신선상 및 화단만 운영함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포교지원 내
김수문 021523-0241, 0243

대한교육평가기원

사무소: 서울 중구 안국동 세운관건물 2층 213호
전화: 02-766-9090